

영어성경이 영미 어문학-문화에 끼친 영향: 구약성경 창세기를 중심으로

최수영
(한국교원대학교)

Choi, Soo-Young. (2010). English Bible and its influence on English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Focused on Genesis of the Bibl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4), 291-320.

The Bible has been and still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books ever published. The English Bible has a great impact on English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Therefore, knowledge of the Bible is essential in learning English language, its literature, culture and tradition. Biblical allusions are found in great literature and the daily newspapers as well. Rock musicians, screenwriters, television producers, and advertisers use the Bible as a source. Politicians use the words and accounts of the Bible to frame their debates. The Bible has continued to be philosophically, ethically, religiously, and politically influential in Western, Eastern, now World cultures. Therefore, not to know it means not to understand a great portion of world cultur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first book of the Bible, Genesis, in English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why we should incorporate the English Bible in English education.

[Influence of English Bible/Bible and English education, 영어성경의 영향력/
영어성경과 영어교육]

I. 서론

1. 연구의 취지 및 필요성

영어와 영문학 그리고 서양의 문화와 예술에 성경만큼 영향을 끼친 책은 없다(Frye, 1982). 성경은 서구인들 의식 깊이 뿌리 박힌 세계관을 제공했으며, 따라서 영어에는 알게 모르게 사용되는 성경적 표현이 참으로 많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위원회의 서양 문명에 성경이 끼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경이 서구 문명의 정부 사회 단체와 경제 이론의 원천이 되었으며 지적, 도덕적, 영적 이상(ideals)에 가장 접근하기 쉽고,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원천이 되었고 많은 장르와 소재가 포함되어 영어 언어와 문학의 보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Schippe & Stetson, 2005; 최수영, 2008).

성경만큼 영미인의 가슴과 언어에 깊이 파고든 책이 없으며, 그리스인들에게 호머가 아랍인들에게 코란이 그랬듯이 성경은 영어에 깊은 뿌리를 내렸다(Frye, 1982). 빅토르 위고는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으니, 하나는 영국이 만든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영국을 만든 것인데 바로 셰익스피어의 걸작과 영어성경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다(Haley, 2002). 또한 셰익스피어가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성경이었으며, 그의 작품에는 1300 개 이상의 성경의 인용구가 있다. 그리하여 성경이 없었다면 셰익스피어의 걸작들이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한다(Schippe & Stetson, 2005)

영미문학 작품 속에는 많은 성서적 인유(allusions)가 나온다. 인유란 과거의 역사나 문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미문학에서는 어떤 다른 문학보다도 성경에 대한 인유가 더 많다. 그러므로 영미문학을 올바르게 깊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요 필수적이고 효율적이다(Frye, 1982; Ryken, 1984)

영어 성경은 종교적 성서임과 동시에 당대 최고의 영어 석학들이 번역한 고급 영어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영어문장으로 이루어진 영어 성경으로 영성과 동시에 영어 실력까지 키울 수 있게 구성한 책이다.

유성덕(1985, 1991)은 영미인이든 아니든 영문을 습득하여 독자적인 문체를 만들어 낸 사람으로서 성경의 영어를 습득하지 않고 대성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며, 영어성경은 오늘날 영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되고 있으며 영문학의 기본적인 rule 과 principle 을 명확하고도 집중적이며 체계적인 형식으로 발견하는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신권(1987, 1992)은 성서는 Anglo-Saxon 시대 이후 지금까지 영어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영미인들의 대화 속에 성서의 구절이 토착화되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영어표현에 대한 성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영어와 영문학에서 반영되는 성서적 요소는 이렇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 밖의 수사, 비유, 문체 등에서도 수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King James Version(KJV)은 외래어가 아닌 순수영어를 90-96%까지 사용하고 있고 순수영어를 즐겨 구사하는 작가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쳤다. 특히 17 세기 영문학은 KJV 의 출간에 즈음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찬란한 산문학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을 것이다(유성덕, 1991; 조신권, 1987, 1992).

하버드대학교의 Robert Kiely 교수는 성경을 모르면 영미 작가의 세계와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인문학의 풍부하고 중요한 보고를 쌓는 것이며, 성경은 계속적으로 동서양 그리고

아프리카의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니, 성경을 모르면 세계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영미 문학은 성경의 전설, 도덕, 성경의 인물, 성경의 은유, 성경의 상징에 깊숙이 연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영미 문학을 한다는 것은 외국어의 기본이 되는 문법과 어휘를 학습하지 않고 그 외국어를 말하고 읽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Bible literacy report II*, 2006, p. 8; 최수영, 2008).

2. 연구의 목적

- 1) 영어학습과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어성경의 위상은 무엇이며, 왜 영어성경이 영어와 영미문학 그리고 영미 문화의 이해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유를 살펴본다.
- 2) 영어성경이 영어와 영미 문학, 역사 그리고 언어생활에서 끼친 영향의 사례를 조사하고, 특히 영미 문학 작품, 관용어구와 영어권 원어민들의 문화 및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실상을 조사한다.
- 3) 영어성경을 영어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II.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영미 어문학 및 문화에 끼친 영향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약의 39권중 처음의 책이 [창세기(Genesis)]이다. 성경이 영미 어문학 및 문화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성경의 첫째 책인 [창세기]만을 고찰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 구약 성경과 창세기의 내용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율법서로서 모세 5경(히브리어로 TORAH, 영어로는 PENTATEUCH)이라고 하며 작가는 모세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모세의 5경 중에서 처음 책이 Genesis(창세기)이다. Genesis는 기원이라는 뜻으로 천지 창조,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통한 인류의 기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다룬다.

[창세기]라는 명칭은 이 책 2장 4절의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다”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이 책 최초의 말씀 ‘처음(태초: 베레시스)에’를 그 명칭으로 하고 있다. 창세기는

2부로 나눌 수 있다. 제1부는 태고사(1~11장)로서 만물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다. ① 세계와 인류의 창조(1~2장), ② 죄의 기원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3장), ③ 문명의 기원과 사람의 증가(4~5장), ④ 노아와 홍수 이야기(6~9장), ⑤ 제민족과 히브리 민족의 기원 및 바벨탑(10~11장)이며, 제2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사(12~50장)이다. ① 아브라함의 생애(12~25:18), ② 이삭의 생애(25:19~28:9), ③ 야곱의 생애(28:10~36장), ④ 요셉의 생애(37~50장)이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인류 구제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야곱의 가계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우주와 지구 창조의 기원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 1 장은 자연계의 창조에 대해 간결하고 우아한 문체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stirring narrative)로 시작되며, 세계 문학의 걸작 중의 걸작으로 여겨진다.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2.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3.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4.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5.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6. And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div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7. And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vided the waters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and it was so. 8.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ven.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econd day.

9. And God said,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 be gathered together u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land appear: and it was so. 10.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중략

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28.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ixth day.

3.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의 크리스마스 메시지

영미인들은 성경을 토대로 하여 국가를 건설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을 자주 인용하며 생활에 적용시키는 민족이다. 그 중의 한 구체적인 사례로 1968년 12월 24일, 미국의 유인우주선 '아폴로 8호'가 사상 처음으로 달과 달에서 바라본 떠오르는 지구의 모습을 지구로 보내면서 온 세계가 TV를 통해 지켜보는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윌리엄 앤더스, 짐 러벨, 프랭크 보먼 세 명의 아폴로 승무원들은 King James Version(흠정역 성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나누어 읽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왔다.

먼저 William Anders는 "We are now approaching lunar sunrise and, for all the people back on Earth, the crew of Apollo 8 has a message that we would like to send to you. " 그리고 창세기 1장의 10절까지 나누어 읽었다. 마지막으로 프랭크 보먼(Frank A. Borman)선장이 10절까지 읽고는 "And from the crew of Apollo 8, we close with good night, good luck, a Merry Christmas - and God bless all of you, all of you on the good Earth." 하고 끝냈다.

영원한 침묵과 어둠 속에 잠긴 우주에서 들려오는 태초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TV로 달을 지켜본 인류를 전율케 하였다.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1971년 2월 5일, 아폴로 15호의 선장인 에드가 미첼(Edgar Mitchell)은 달나라에 가서, 성경전서를 담은 마이크로 필름을 땅에 묻었다. 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1을 16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함께 묻었다고 한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성경 첫 장 첫 절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새롭게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이 단어 속에 "시간과 공간과 실체와 인과율"이라는 물리학의 4가지 기본 개념이 다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태초에 [시간] 하나님이 하늘과 [공간] 지구를 [물질] 창조하시니라 [인과율]"의 네 개념이 나타난다(Youngblood, 1991).

아폴로 계획의 성공과 창세기를 읽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아폴로에서 바라본 작은 지구의 모습을 담고 하단에 "In the beginning, God..."라고 새겨 1969년 5월 5일 우표를 발행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대중 문화(in popular culture)에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Wikipedia는 보고하고 있다.

An excerpt from the recorded readings (mostly from Anders' section)"In the Beginning" features prominently in the opening track the album *The Songs of Distant Earth* (1994) by Mike Oldfield.

The European electronic duo VNV Nation use a sample of the recording on "Genesis", a song from their 2002 album, Futureperfect.

In the *Space: Above and Beyond* episode "The River of Stars," the Apollo 8 recording is played for the 58th "Wildcards" Squadron.

The entire reading is reproduced verbatim in the "1968" episode of the HBO TV miniseries *From the Earth to the Moon*.

Israeli Goa trance artists Astral Projection have a song titled "Let There Be Light", which has a sample of the first four verses, read by William Anders.

The group MGMT used the verses read by Frank as a sample in one song named "Come On Christmas" from the album "Climbing To New Lows".

4. 창세기의 창조의 내용과 음악

고전 음악의 대가(모짜르트, 하이든, 베토벤)의 한 분으로 여겨지고 심포니의 아버지 또는 4 중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Joseph Haydn 1732-1809)은 영국의 귀족의 의뢰로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의 창조의 장엄함을 나타내는 성구들을 가사로 삼아 [천지창조] "The creation" 이라는 음악으로 만들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합창으로 부르고 있다. 원래 성서의 창세기에 기초하고 존 밀턴의 서사시 [실낙원](The Paradise Lost)를 참고한 이 작품의 대본은 '고트프리트 판 슈비텐' 남작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하이든의 여러 훌륭한 작품 중에서도 "The Creation" 은 가장 위대한 대표작으로 여겨진다.

하이든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서 열린 '헨델'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는 '헨델'의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헨델을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도 위대한 하나님의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창조자에 대한 숭배와 예배'에 영감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으며, 듣는 자로 하여금 '창조자의 자비와 전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틀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한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오랜 세월이 걸친 작곡 활동으로 축적된 대위법적 기법과 천성적 기법을 원숙하게 동화시킨 [천지창조]는 묘사적인 서법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친숙하기 쉬운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의 성품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http://en.wikipedia.org/wiki/The_Creation_\(Haydn\)](http://en.wikipedia.org/wiki/The_Creation_(Haydn)))

[천지창조]의 내용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전곡은 모두 3 부로 되어 있는데, 대천사 가브리엘(소프라노), 우리엘(테너), 라파엘(베이스)과 합창이 천지창조 과정을 노래한다.

[천지창조]의 작곡에 전념하고 있던 시기는 하이든 생애에서 가장 풍요하고 가장 행복한 때였다. 하이든은 신앙심으로 고양되었고 하느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가졌다. 그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완전히 작곡에 몰두했으며, 그의 본성 가장 깊은 곳에 깃든 힘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는 작곡을 마칠 때마다 각 작품의 끝에 "하느님께 영광을(Laus Deo)"이라고 써넣었다. 하이든의 모든 작품은 천상의 아버지를 찬미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천지창조]였다.

헨델의 [메시아]가 힘차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면 [천지창조]는 단아하고 소박하게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을 그려냈다. 1798 년 빈의 슈바르첸베르크 궁전에서 초연되어 절찬을 받은 이 작품은 하이든 음악 생활의 총결산이라는 평을 듣는다. 그리고 친숙하고 쉬운 멜로디와 간결, 소박한 구성이 이 곡 [천지 창조]를 오랫동안 세상에 남을 명작으로 만들었다.

1808 년 하이든의 마지막 공연에서 그의 제자 베토벤도 참석하였고 공연이 끝난 후 베토벤은 노장의 스승을 찾아 무릎을 꿇고 알현하면서 그의 손에 키스를 하였다(Schippe & Stetson, 2006, p. 29).

동화상과 가사 그리고 음악은 다음의 사이트(<http://www.youtube.com/watch?v=4gzEPvbTVXc&feature=related>)에서 감상할 수 있다.

5. 아담과 이브 그리고 에덴동산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 그리고 에덴 동산의 창조(창세기 1~2 장)은 서양의 철학, 문학과 예술에 접목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상은 영국과 미국의 철학, 정치와 경제 등 다방면에 영향을 끼쳤으며, 세계의 철학자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소재가 되어 왔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여 한 몸 "one flesh" (Genesis 2:24)을 이루어 서로 도와가며 살도록 의도하셨다.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nd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 help meet for him. And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formed every beast of the field, and every fowl of the air; and brought them unto Adam to see what he would call them: and whatsoever Adam called every living creature, that was the name thereof. And Adam gave names to all cattle, and to the fowl of the air, and to every beast of the field; but for Adam there was not found a help meet for him. And the LORD God caused a deep sleep to fall upon Adam, and he slept: and he took one of his ribs, and closed up the flesh instead thereof; And the rib, which the LORD God had

taken from man, made he a woman, and brought her unto the man. And Adam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because she was taken out of Man. Therefor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shall cleave unto his wife: and they shall be one flesh (Genesis 2: 18~24).

창세기에는 이브를 창조할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며 "help meet" 즉 동반자의 관계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창세기의 사건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결혼 의식에 반영되어 결혼식 때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결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주 언급되곤 한다(Schippe & Stetson, 2005, p. 32).

먼저 전통적인 유대교 결혼식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축복기도가 행해진다.

Blessed are you, Unnamable God, source of the universe, who purify us with your commandments and give us marriage as a path to you. Blessed are you, Unnamable God, source of the universe, who created man and woman in your image and placed eternity in their hearts. Give joy to these two loving friends, as you gave joy to the first man and woman in Garden of Eden.(Traditional Jewish wedding blessing, adapted by Stephen Michell)

로마 가톨릭의 결혼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도 문구가 자주 사용된다.

In the beginning you created the universe and made mankind in your own likeness. You gave the man the constant help of woman so that man and woman should no longer be two, but one flesh, and you teach us that what we have united may never be divided. (From the Roman Catholic Rite of Marriage)

영국 성공회의 결혼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축복의 기도를 듣게 된다.

The bond and covenant marriage was established by God in creation. The union of husband and wife in heart, mind, and body is intended by God for their mutual joy; and adversity; and when it is God's will, for the procreation of children. Those whom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put asunder. (From the "Anglican Marriage Ceremony," The Book of Common Prayer.)

6. 창조자

창세기에 의하면 하느님은 자연계와 인간을 말씀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창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이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창조하는 유명한 그림이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 미켈란젤로(1475~1564)에 의해 그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의 극치인 인간 즉 “아담의 창조”에 대한 영감을 주고 있다. 라파엘(1483~1520)은 “동물의 창조”를 그렸고 또한 영국의 공상화가요 시인인 William Blake(1757~1827)는 창조주께서 공허한 공간에 빛을 창조하고 물질들을 조직하는 “Ancient of Days” 그림(1794)을 그렸고, 미국의 대표적 회사 중의 하나인 GE(General Electric)의 본사 뉴욕 빌딩 입구에는 William Blake의 그림을 각색하여 창조주께서 빛을 창조하는 조각 작품이 본사 입구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

창조주를 나타내는 "Ancient of Days"는 미술과 음악의 많은 작품의 원천이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가사를 붙인 뮤직 비디오가 유명하고 또한 그러한 제목으로 노래와 콘서트도 하며 영미인들의 생활에 깊이 연루되어왔다.

"Ancient of Days" has been used as a source of inspiration in art and music, denoting the creator's aspects of eternity combined with perfection. William Blake's watercolor relief etching entitled "The Ancient of Days" is one such exampl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ncient of Days"에 대한 음악 비디오와 동화상 그리고 콘서트를 다음의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창세기의 창조가 Pop Culture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감상할 수 있다.

Music Video with Lyrics (<http://www.youtube.com/watch?v=0UAUydIhRFY>)

Ancient of Days (worship video w/ lyrics)

<http://www.youtube.com/watch?v=HBcP1ICgUIM>

CONCERT(7min): <http://www.youtube.com/watch?v=UOe5GpqFJrE>

Auguste Rodin(1840-1917)은 프랑스의 조각가로. 근대 조각의 시조이며, 근대 조각 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The hand of God” or “The Creator”라는 제목의 대리석 조각과 청동 조각을 하였던 데 아담과 이브가 거친 대리석에서 만들어 지는(혹은 조각가인 로댕의 손에서) 모습을 조각하였다

7. 창세기의 창조와 과학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와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론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종교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지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적인 귀납법(Scientific method)을 제창한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1561~1626))에 의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점진적인 전개는 과학적인 방법과 유추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자연과학의 기초를 제공하였고 그리하여 서양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제임스 심슨 경(1811~1870)은 하느님께서 이브를 창조할 때 아담이 깊은 잠에 들게 하여 갈비뼈를 꺼내어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담에게 마취를 하여 그렇게 했다고 믿고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빅토리아 여왕이 레오폴드 왕자를 낳을 때 자기가 발견한 마취제를 사용하여 여왕을 마취하였으며 그 때부터 그의 발견은 세상의 이목을 받게 되었다(Schippe & Stetson, 2005, p. 33).

Benjamin Whorf(1897~1941)는 그 당시 진화론과 창조론 등 과학과 종교가 서로 갈등을 겪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원어인 히브리어와 영어의 세계관이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것이라는 착안을 하게 되었고 히브리어를 연구하여 발견한 것이 히브리어의 창조라는 의미와 개념이 영어권의 창조와는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히브리어의 창조는 'organize or fashion'의 뜻으로 조직되지 않은 물체나 원소를 조직한다는 뜻이고 영어의 'create'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창조주는 이 우주를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았고 'unformed and void'한 상태에 있는 물질들을 조직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언어가 다르면 우주를 조직하고 이해하는 틀이 다르다는 언어학의 한 유명한 가설 즉 언어는 인간의 인지, 즉 사고를 결정하고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서 인간의 사고도 달라진다는 언어 상대성 가설인 Sapir-Whorf hypothesis 를 제안하게 된다(Carroll, 1956; Choi, 1986; 최수영, 2008).

8. 인간의 고결함과 평등함

창세기에 의하면 창조자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였고 모든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 이러한 세계관은 서양뿐만 아니라 영미 문화 및 철학, 문학, 예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온 나라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국부들 특히 토마스 제퍼슨이 주동이 되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Ellis, 2007; Newcombe, 2009).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이 말은 영어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 중이 하나로 일컬어지며 미국 헌법이 작성되는 기초와 정신이 되었고,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도 인용되고, 인권운동가 킹 목사의 연설, 그리고 최근의 버락 오바마의 연설에서도 인용된 유명한 말이며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유래한 표현들이다 (Ellis, 2007; Newcombe, 2009).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1782~1852)는 창세기와 성경의 영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The Bible is a book of faith, and a book of doctrine, and a book of morals, and a book of religion, of special revelation from God; but it is also a book which teaches man his own individual responsibility, his own dignity, and his equality with his fellow-man.”(Stevenson, 1967, p. 158)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온 인류의 첫 조상이요 온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국가 및 사회원들, 특히 영미인들의 인권(human right)에 대한 기본 사상이 되었으며 도덕, 사회정의, 정치 및 법률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미국의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반 상식(Common Sense)*의 작가로 알려진 Thomas Payne(1737~1809)는 인간의 평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The Mosaic account of the creation, whether taken as divine authority or merely historical, is full of this point, the unity or equality of man. The expression admits of no controversy.... the equality of man. so far from being a modern doctrine, is the oldest upon record.”

9. 아담과 이브 그리고 에덴 동산이 문학에 끼친 영향

미국이 낳은 시인 Robert Frost(1874~1963)은 그의 고향 뉴 잉글랜드의 경치를 에덴 동산의 추억으로 간직하였고, 그의 소네트 [Never Again Would Birds' Song Be the Same]" 이라는 시에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연인의 세계가 변화되는 아담의 귀로 세상과 새소리를 듣게 된다고 비유하여 다음과 같은 소넷을 썼다. 이것을 문학 세계에서는 "pathetic fallacy (감상적 오류"라고 한다(Schippe & Stetson, 2006, p. 35).

He would declare and could himself believe
 That the birds there in all the garden round
 From having heard the daylong voice of Eve
 Had added to their own an oversound,
 Her tone of meaning but without the words.
 Admittedly eloquence so soft
 Could only have had an influence on birds
 When call or laughter carried it aloft.
 Be that as may be, she was in their song.
 Moreover her voice upon their voices crossed
 Had now persisted in the woods so long
 That probably it never would be lost.
 Never again would birds' song be the same.
 And to do that to birds was why she came.

미국의 여류시인인 Emily Dickinson(1830-1886)은 우리가 사는 곳을 에덴에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시를 지었다.

Emily Dickinson - Eden is that old-fashioned House

Eden is that old-fashioned House
 We dwell in every day
 Without suspecting our abode
 Until we drive away.
 How fair on looking back, the Day
 We sauntered from the Door --
 Unconscious our returning,
 But discover it no more.

10. 카인과 아벨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자식을 낳아 형은 카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었다.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살인을 하게 된다. 그 후 하느님이 카인에게 나타나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카인은 "I know not. Am I my brother's keeper?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 입니까?)"라고 대답한다. 인류 처음으로 살인자가 된 카인은 살인자라는 낙인(Mark of Cain)이 찍히고 쫓겨나서 East of Eden(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Am I my brother's keeper?, brother's keeper, Mark of Cain, to raise Cain, East of Eden, " 등은 영어의 관용어구가 되어 영미인의 일상 언어, 문학 작품, 영화의 제목, 연설문, 대중 가요, 그리고 팝음악 등에 자주 쓰이는 말이다.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웃을 돌보고 지키는 자가 되어 "Let us be our brother's keeper, Let us be our sister's keeper." 미국을 한 가족과 같은 단결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이러한 정신이 정치에도 반영하자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예로 2008 년 3 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명연설의 일부이다.

In the end, then, what is called for is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than what all the world's great religions demand – that we do unto others as we would have them do unto us. Let us be our brother's keeper, Scripture tells us. Let us be our sister's keeper. Let us find that common stake we all have in one another, and let our politics reflect that spirit as well.

또한 이 말이 영어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인터넷 백과사전 Wikipedia 에서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용례가 있다(2010 년 9 월 검색). In film and TV 에서 15 사례, In music 에서 6 사례 그리고 In other uses 5 가지의 사례가 나온다.

또 다른 관용어구인 "Do not raise Cain" 이라는 문장에서 Cain 을 단지 보통 사람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다면 '카인을 불러 깨우지 말아라' 정도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Cain 이 성서에 나오는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이라는 것을 알면 이 표현이 성서에서 유래한 관용어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구의 관용적 뜻은 '소란을 일으키지 말아라'이다. 성서의 영향을 받은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영어를 언어로만 습득한다면 부딪히게 되는 한계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배경에 성서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의사소통에 큰 차이가 있다.

이 관용어구가 영미인의 문학 작품, 즉 Mark Twain 의 [Huckleberry Finn(허클베리핀)]과 Stevenson 의 [Treasure Island(보물섬)]에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市河三喜, 1959).

"Every time he got money he got drunk; and every time he got drunk he raised Cain around town." (Mark Twain, *Huckleberry Finn*, p. 27, 1.7)

"I'm a man that has lived rough, and I'll raise Cain." (Stevenson, *Treasure Island*, p. 17)"

구체적 사례로 성경 창세기의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가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서 살았던 곳이 East of Eden(에덴의 동쪽)이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작가 John Steinbeck (1902-1968)이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의 이름이 [East of Eden(에덴의 동쪽)]이었고 1952 년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캘리포니아의 셀리나스의 비옥한 농촌에서 벌어지는 두 가족간의 갈등과 다툼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2008 년부터 2009 년 MBC 창사 47 주년 특별 드라마로 사랑과 야망, 그리고 복수와 화해의 대서사 드라마 [에덴의 동쪽(East of Eden)]" 이 2008 년 8 월 25 일부터 2009 년 3 월 10 일까지 문화방송을 통해 56 회 방송되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내용과 이야기는 영미 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그리고 온세계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인문학의 보고가 되고 있으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갖게 된다.

Dante Alighieri(1265~1321)는 서양문학의 위대한 서사시인, [THE DIVINE COMEDY(신곡)]에서 사후 세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가족의 식구들을 살인하는 것이 가장 끔직한 죄악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지옥을 "CAINA"라고 명명하였다.

11. James Weldon Johnson 의 설교

James Weldon Johnson(1871~1938)은 미국 흑인애국가의 작사가이자 아프리카-아메리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동시에 외교관이었던 작가가 미국에서의 흑인 민권 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다음과 같이 흑인들에게 쉽고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 "The Creation" is part of a longer work entitled God's Trombones.

The Creation (from Exploring Poetry, Gale, 1997).

And God stepped out on space,
 And he looked around and said:
 I'm lonely --
 I'll make me a world.
 And far as the eye of God could see
 Darkness covered everything,
 Blacker than a hundred midnights
 Down in a cypress swamp.
 Then God smiled,
 And the light broke,
 And the darkness rolled up on one side,
 And the light stood shining on the other,
 And God said: That's good!

중략

This Great God,
 Like a mammy bending over her baby,
 Kneeled down in the dust
 Toiling over a lump of clay
 Till he shaped it in his own image;
 Then into it he blew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Amen. Amen.

Here is a virtual movie of the celebrated African American preacher poet James Weldon Johnson reading his sermon/poem [The Creation] James Weldon Johnson (June 17, 1871 June 26, 1938).

http://www.youtube.com/watch?v=mcP8cYq_arQ&feature=related

<http://www.youtube.com/watch?v=qJU4HmE1HQ&feature=related>

12. 밀턴의 실낙원

밀턴의 [실낙원]은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 불후의 종교 서사시 이다. 고전 서사시의 영웅으로서의 사탄과 그의 퇴화, 신과 섭리, 자유의지 문제, 에덴(Eden)에서의 타락 전 아담(Adam)과 이브(Eve)의 삶, 인간의 성, 하늘의

전쟁, 창조, 타락의 비극, 그리고 타락 후의 역사와 내적인 천국 등을 논한다. 밀턴의 [실낙원]은 17세기 정신세계를 집약한 근대문화의 꽃봉오리이자 인류문화의 찬가다. 호머의 [일리아드 오딧세이]가 그리스 정신을 증언하고, 버질의 [이니드]가 로마 정신을 대변하고, 단테의 [신곡]이 르네상스 정신을 보여주듯이 [실낙원]은 근대 청교도 정신의 정수를 여실히 드러낸다. 청교도 정신의 결실이 근대 문화란 점을 감안할 때, [실낙원]은 근대 문화 원리와 이데올로기의 형상화라고 여겨진다(김봉균, 최혜실, 1988; 최재현, 1984).

[실낙원]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매우 방대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와 [요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 싸움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서사시엔 이러한 성서의 구절들이 수없이 삽입되어 있고, 또 고전에 정통한 학자라도 현혹을 느낄 정도로 번거롭게 그리스, 로마의 고전과 그 밖의 여러 사상에 대한 지식이 나열 또는 인용되어 있다. [실낙원]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성서적 주제를 다룰 때 흔히 빠져들기 쉬운 단색의 빛에다 고전의 깊은 맛을 가미해 준 데 있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인간의 운명과 신의 도리라는 장대한 문제를 고전적 전통의 빛을 가지고 조명해 줄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실낙원]은 인류문화의 두 원류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합하여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기에 더욱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낙원]은 사탄 일파가 지옥에서 권토중래를 노리며 천상에 대한 반격을 모의하는 데서 시작한다. 사탄 일파는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책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세에서의 하느님의 영의 자녀 중 3분의 1을 끌어 모아 모반을 꾀하나 실패 한 뒤 지옥으로 떨어져 고역을 치르고 있었다. 사탄은 악마의 괴수들을 모아 참모회의를 연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전술이 나왔으나 자신들의 여건을 고려해 천상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침략을 감행하기로 결정한다. 사탄은 유혹의 대상으로 이브를 선택한다. 마음이 약하고 남을 잘 믿는 이브가 사탄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선악과를 맛보자 천지가 뒤흔들리고 우주에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온다. 아담은 차마 이브의 축출을 방관할 수 없어 스스로 선악과 따먹는다.

Of Mans First Disobedience, and the Fruit
Of that Forbidden Tree, whose mortal tast
Brought Death into the World, and all our woe,
With loss of EDEN, till one greater Man
Restore us, and regain the blissful Seat,
Sing Heav'nly Muse, that on the secret top
Of OREB, or of SINAI, didst inspire
That Shepherd, who first taught the chosen Seed,
In the Beginning how the Heav'ns and Earth

Rose out of CHAOS: Or if SION Hill
 Delight thee more, and SILOA'S Brook that flow'd
 Fast by the Oracle of God; I thence
 Invoke thy aid to my adventurous Song,
 That with no middle flight intends to soar
 Above th' AONIAN Mount, while it pursues
 Things unattempted yet in Prose or Rhime.
 And chiefly Thou O Spirit, that dost prefer
 Before all Temples th' upright heart and pure,
 Instruct me, for Thou know'st; Thou from the first
 Wast present, and with mighty wings outspread
 Dove-like satst brooding on the vast Abyss
 And mad'st it pregnant: What in me is dark
 Illumine, what is low raise and support;
 That to the highth of this great Argument
 I may assert th' Eternal Providence,
 And justifie the wayes of God to men.

--- The Prologue and Invocation

인류최초의 불순종, 그리고 금단(禁斷)의 나무열매여 그 너무나 기막힌 맛으로 해서
 죽음과 더불어 온갖 슬픔 이 땅에 오게 하였나니 에덴을 잃자 이윽고 더욱 거룩한 한
 어른 있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또한 복된 자리를 다시금 찾게 하여 주셨나니
 하늘에 있는 뮤즈(Muse)여 노래하라
 그대 호렙산이나 시내산 은밀한 정상에서
 저 목자의 영혼을 일깨우시어
 선민에게 처음으로 태초에 천지자
 혼돈(混沌)으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나이까.
 아니 또한 시온(Zion) 언덕이 그리고 또한
 성전 아주 가까이 흘러 내리고 있는
 실로암 시냇물이 당신 마음에 드셨다면
 이 몸 또한 당신에게 간청하노니
 내 모험의 노래를 분돋아 주소서
 이오니아(Ionia) 산을 넘어서 높이 더 높이
 날고자 하는 이 노래이니
 이는 일찍이 노래에서나 또 글에서나 아직
 누구나 감히 뜻하여 본 일조차 없는 바를 모색함이라.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대 아 성령이여
 어느 궁전보다 앞서
 깨끗하고 곧은 마음씨를 좋아하셨으며, 당신이여 지시하시라, 당신은 알고 계시지
 않으시나이까.
 처음부터 당신은 임석하시어 거창한 날개를 펴고 비둘기와 같이 넓은 심연을 덮고
 앉으사
 이를 품어 태어나게 하셨나이다. 내게 날개 편 어두움을 밝히소서, 낮은 것을 높이고
 또 받들어 주소서
 이는 내 시의 대주제의 높이에까지
 영원한 섭리를 밝히고자 함이요, 또한
 못사람에게 하느님의 도리를 옳게 전하고자 함이라.

---'실낙원'의 <서시>에서

Luxon, Thomas H., ed. The Milton Reading Room,
<http://www.dartmouth.edu/~milton>, Sept, 2010.

[실낙원]은 천상과 인간의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뤄 끝내 하나가 되는 방안으로 기독교 문화와 그리스 문화 또는 르네상스 문화와의 결합을 꾀한다. 과학과 철학, 종교와 예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실낙원]에 나타나는 사상을 보면 종교개혁의 기본정신이며 청교도의 이상인 인간과 신의 일치를 그 정수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천상과 인류의 법이 일치하는 접점을 찾고 하늘의 소리와 인간의 도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내내 강조한다. 서구 지성계는 [실낙원]을 발판으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조화와 통합을 끊임없이 시도했고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이성을 탄생시켰다 (김봉군, 최혜실, 1988; 최재현, 1984).

13. 노아의 방주

노아(Noah)는 아담의 9 대 후손으로 기원전 2944 년에 태어났고 악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여호와와 부름을 받고 120 년간 회개를 외치다가 기원전 2344 년 홍수가 시작되어 그의 나이 600 세에 가족을 데리고 노아의 방주(Noah's Ark, -方舟)에 들어가 40 일간 주야로 퍼붓는 홍수를 피했다(창세기 6:5~9:29). 그 당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나날이 포악해지므로 하느님은 홍수를 내려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의 후손(셈, 함, 야벳)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And Go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magina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And it repented the LOR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him at his heart. And the LORD said, I will destroy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both man, and beast, and the creeping thing, and the fowls of the air; for it repenteth me that I have made them.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Noah: Noah was a just man and perfect in his generations, and Noah walked with God. And Noah begat three sons, Shem, Ham, and Japheth. (Genesis 6:1-10)

그리하여 홍수가 40 일간 계속되었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모두 멸망되고 노아의 식구 8 명만 살아남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아남아 인류의 문명이 다시 시작되었다. 노아의 3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 3 아들을 통해 인종들이 다음과 같이 분포되었다고 한다.

Shem--셈족으로 선조로 히브리족과 아랍족이 후손이다.

Japheth--유럽 및 아시아인들이 후손이다.

Ham--아프리카인들이 함의 후손으로 함의 손자인 Nimrod 가 바벨탑을 총지휘했다.

노아와 노아의 방주 및 홍수에 대하여는 전설과 예술 등 세계의 문화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빌 코스비라는 코메디에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Bill Cosby Is A Very Funny Fellow...Right! is the debut album release by Bill Cosby. It was recorded live at the famous The Bitter End club in New York City's Greenwich Village during early 1963. The album was a hit upon release, though merely a precursor to Cosby's future popularity and album success on Warner Bros. Records. Cosby's storytelling style and characters were undeveloped at this stage but his good-natured conversational approach to the surreality of everyday life was nonetheless popular with the public. Tracks 4, 5, and 6 feature Cosby's breakout "Noah" routine—an imagined conversation between God and a skeptical Noah (and also their next-door neighbor, whose driveway is blocked by Noah's unfinished ark)—which is considered by many to be a stand-up classic in addition to a masterpiece of Cosby's vocal and comedic ability.

Track listing [edit]Side one

1. A Nut in Every Car - 3:15
2. Toss of the Coin - 2:08

3. Little Tiny Hairs - 1:45 4. Noah: Right! - 3:35
 5. Noah: and the Neighbor - 1:15 6. Noah: Me And You, Lord - 3:01

다음의 사이트에서 빌 코스비의 the Noah's 를 감상할 수 있다.

(http://www.nutsie.com/song/Noah:%20Right!/4871688&album_id=4871681)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문학 작품 및 예술 및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었고 최근에는 미국의 크리스찬 록 밴드인 Jars of Clay(성경의 고린도 후서 4:7 절에 나오는 질그릇)에 의해 노아의 홍수 내용이 음악으로 만들어져 그래미상을 받았고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 현대의 세상의 고민과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원자를 갈망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라는 것을 가사는 시사하고 있으며 성경 창세기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현대판 록 음악으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Lyrics of the FLOOD -----

Rain, rain on my face
 It hasn't stopped raining for days
 My world is a flood
 Slowly I become one with the mud
 Chorus:
 But if I can't swim after forty days
 And my mind is crushed by the thrashing waves
 Lift me up so high that I cannot fall
 Lift me up
 Lift me up - when I'm falling
 Lift me up - I'm weak and I'm dying
 Lift me up - I need you to hold me
 Lift me up - keep me from drowning again
 Downpour on my soul
 Splashing in the ocean, I'm losing control
 Dark sky all around
 I cant feel my feet touching the ground
 [chorus]
 Calm the storms that drench my eyes
 Dry the streams still flowing
 Cast down all the waves of sin

And guilt that overthrow me
 [chorus]
 Lift me up - when I'm falling
 Lift me up - I'm weak and I'm dying
 Lift me up - I need you to hold me
 Lift me up - keep me from drowning again

Video - Jars of Clay Flood - tangle.com
www.ourchristianvideos.com/jars-of-clay/jars-of-clay-flood/

14. 아브라함의 서약

아브라함은 ‘열국(列國)의 아버지’ 라는 뜻으로 노아의 9 대손인 데라의 아들로 갈대아 우르에서 기원전 1992 년에 태어났다(창 11:26; 31; 17:5). 하느님께서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라고 명하셔서 아버지 데라, 아내 사라, 형제 나홀과 하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다(창세기 12 장)

Now the LORD had said unto Abram, Get thee out of thy country, and from thy kindred, and from thy father's house, unto a land that I will shew thee:
 And I will make of thee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thee, and make thy name great; and thou shalt be a blessing:
 And I will bless them that bless thee, and curse him that curseth thee: and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Genesis 12:1~3)

아브라함은 86 세에 사라의 애급인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아랍인의 선조)을 낳았고(창세 16:1 이하), 100 세에 비로소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스라엘 선조)을 얻었다(창세 21:1 이하). 그는 조상들과 달리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신앙하였다(여호 24:2). 그는 하느님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창세 17:1, 21:33), 하늘과 땅의 주관자로(창세 24:3), 그리고 모든 인류의 심판자로 섬겼다(창세 18:25). 그는 하느님의 친구로 대접받았으며(창세 18:33), 환상이나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수시로 계시 전달받았다(창세 15:1, 18:1). 주께서 영원한 성약을 맺으신 주의 선지자로, 이 성약을 통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공통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 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1~2)하는 말로 그 시험은 시작된다. 그 아들 이삭은 '사랑하는 독자' 라는 데 있다. 성경에서 보는데로 하나님께서도 번제로 바쳐야 할 이삭은 가리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입을 특별히 강조하셨다.(창 22:2) 이삭은 그가 100 세에 얻은 아들이요, 그나마 유일한 약속의 아들이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희생의 제물로 죽이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또는 "땅의 티끌 같이" 번성할 수 있으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는 침묵 중에 순종했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창 22:3)

그의 독생자 이삭에게 번제의 나무를 지게 했고 걸어가던 이삭은 "불과 칼을 손에 들도" (창 22:6) 가는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22:7) 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대답,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22:8) 하였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달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 (창 22:9,10) 할 때에도 이삭은 아무런 반항이 없었고 그저 침묵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 산은 후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였으며, 번제단을 쌓았던 그곳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달리신 그곳이다. 묵묵히 번제단에 오른 어린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림자였다.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오르던 모습 그대로가 곧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여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이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죽여야 했던 아브라함의 그 괴로웠던 마음에서 우리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피흘려 제물이 되려는 이삭에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과 순종의 결과는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외쳤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신앙의 시험에 합격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조상이 된다.

15.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미국 청교도들의 메이플라워 공약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동일시 하였고 그리하여 성약 혹은 언약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법적인 그리고 정부의 전통에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1620년 9월 16일 존 카버·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의 플리머스로 떠났다. 순례 시조들은 네덜란드로 망명하였던 영국의 급진적 청교도 분리주의자(English Separatist of Church) 35명, 그리고 영국의 종파주의자(English Sectarrians)와 메이플라워호 승무원 6명 등 총 102명이 타고 있었다. 메이플라워호에 올랐던 사람들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상원의원도 둘이나 있었다. 장군과 사업가, 의사, 교수들도 많았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 당당한 기득권자들이었지만, 장장 5,440Km나 되는 긴 죽음의 항해를 시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다. 처음 출발한 사람은 모두 102명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도중에 44명이나 죽었고 나머지 58명만이 신대륙에 도착했다. 그들은 미대륙 상륙에 앞서서 "시민적 정치 단체(a civil body politic)"의 결성을 했으며 다음과 같은 <메이플라워호 공약>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 신대륙에서 자치 생활을 했다.

Agreement Between the Settlers at New Plymouth : 1620

IN THE NAME OF GOD, AMEN. We, whose names are underwritten, the Loyal Subjects of our dread Sovereign Lord King James, by the Grace of God, of Great Britain, France, and Ireland, King, Defender of the Faith, &c. Having undertaken for the Glory of God, and Advancement of the Christian Faith, and the Honour of our King and Country, a Voyage to plant the first Colony in the northern Parts of Virginia; Do by these Presents, solemnly and mutually, in the Presence of God and one another, covenant and combine ourselves together into a civil Body Politick, for our better Ordering and Preservation, and Furtherance of the Ends aforesaid: And by Virtue hereof do enact, constitute, and frame, such just and equal Laws, Ordinances, Acts, Constitutions, and Officers, from time to time, as shall be thought most meet and convenient for the general Good of the Colony; unto which we promise all due Submission and Obedience. IN WITNESS whereof we have hereunto subscribed our names at Cape-Cod the eleventh of November, in the

Reign of our Sovereign Lord King James, of England, France, and Ireland, the eighteenth, and of Scotland the fifty-fourth, Anno Domini; 1620.

그들은 육지에 도착했지만 극심한 추위와 질병, 굶주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추운 겨울동안 움막에서 추위를 피하다 봄이 왔을 때 잡초로 우거진 땅을 손이 부르도록 개간하여 농사하여 그 해 가을에 정성어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 사건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이다. 그때 포세이돈 목사는 시편 126 편 5 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을 읽고 두 마디 기도를 올렸다. “102 명중에 죽은 자들이여! 이 미국 땅에 위대한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 계약에 의한 정부 수립은 그 후 다른 뉴잉글랜드 식민지들이 모방하는 선례를 제공하였다. 100 여 년 후, 대영제국이 세금 징수를 강행으로 식민지 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1776 년 북미 13 개 식민지는 미합중국 독립을 선언했으며, 1787 년 미국 발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성문헌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를 설립했다. “메이플라워의 공약”은 미국의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문서이다.

1629 년 마사츄세츠 시장이었고 청교도 지도자인 존 윈드롭에 의해 세워진 마사츄세츠 베이 회사는 미대륙 정착과 무역을 장려하였고. 1630 년 뉴 잉글랜드로 가는 아라벨라의 배안에서 윈드롭은 동료 회사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할 것이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성약을 비준한 것이며 우리의 심부름을 승인하여 인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약속된 땅이며 청교도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심어주었다.

메이플라워호가 신대륙에 도착한지 310 년이 지난, 1931 년에 그들의 후손들은 102 명의 선조들의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2 층 Empire State 빌딩을 뉴욕에 세웠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시편 126 편을 읽고 전 미국이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자” 라고 하면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세계 제 2 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 총사령관이었고 나중에 미국의 34 대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1890~1969) 어린시절부터 교회에서 매주 한 번씩 메이플라워 공약을 읽었다. 이 공약은 미국의 선조인 청교도들에 의해 1620 년에 체결된 것으로 미국을 건국한 취지를 밝힌 것이다. 그 취지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의 진리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는 나라에 충성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16.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문학적 견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에 대한 해석은 서양 철학의 두 갈래에서 해석되고 있으며 영문학 작품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Shippe & Stetson, 1995, pp. 60~61). Kierkegaard (1813~1855)는 기독교 신학자요 철학자로서 그의 책 *Fear and Trembling* (<http://www.religion-online.org>)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4 가지 가설하에서 성경과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종교적으로는 옳은 것이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층 수준을 높이기 위한 “leaf of faith”를 가져왔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는 결론으로 “faith requires passion, and passion is not something we can learn. We have to experience it ourselves, or else we do not understand it at all.” 라고 하였다.

Martin Buber(1878~1965)는 유대인 철학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에 대해 Kierkegaard 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이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해 너무 애착을 가졌으므로(우상 숭배의 성격)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안목이 흐려져 있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 자신이 되어 자신에 대한 사명을 뚜렷이 보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Wilfred Owen(1893~1918)는 세계 일차대전 때 영국의 장교로 군대에 근무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죄악에 대한 시인으로 유명하다. 오웬은 전쟁을 기성세대의 외교관, 장군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저질러진 잔인한 비극으로 보았고 그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고발하였다. 그의 시 “The Parable of the Old Men and the Young” 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어둡고 냉소적으로 비유하여 전쟁의 참상과 전쟁을 일으킨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벨트와 가죽끈’으로 묶고 즉 아들의 뜻에 반하여 군대에 몰아넣고 천사가 “자존심의 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들이라고 했으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죽였으니 유럽의 젊은이를 하나씩 하나씩 반을 죽였으니’ 라고 비유적으로 전쟁을 질타했다(http://en.wikipedia.org/wiki/The_Parable_of_the_Old_Man_and_the_Young).

미국의 유명한 화가요 조각가인 George Segal(1924~2000)은 1970년 5월 4일 월남전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한창일 때 미국의 예비군들이 데모를 진압하다가 Kent 주립대학의 학생들 4명을 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발생하게 Kent 대학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젊은 여자가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의 총 몸통에 꽃을 바치는 것으로 작품을 만들도록 주문을 했으나, 시걸은 그렇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조각을 만들었다. 시걸은 Kierkegaard 와 Buber 의 작품을 읽었고 그리고 Owen 의 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은 서 있고 긴장한 이삭은 손이 밧줄에 묶인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조각을 만들었다. Kent 대학은 이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보류했고 프린스턴 대학은 이 작품을 구입하여 현대 예술 전시관 교정에 세워놓았다 (Shippe & Stetson, 1995, pp. 60~61; <http://speccoll.library.kent.edu/4may70/exhibit/memorials/segal.html>).

17. 이스라엘 12 지파와 요셉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성약의 백성이 된다는 아브라함과 의 성약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이어지고,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하도록 명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12 부족이 즉 12 지파가 되게 하였고 나중에 12 지파는 솔로몬 왕 이후 분열되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에 10 지파 남쪽의 유대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북쪽나라로 흩어졌고, 성경학자들은 이를 잃어버린 10 지파라고 한다. 남쪽의 유대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살다가 그들 백성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존폐의 위기에 있다가 70년 후에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해방이 되어 일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의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로마의 속국으로 살다가 로마에 저항했기 때문에 기원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멸망 당하고 온 나라에 흩어져 핍박을 받고 살다가 많은 피난민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금융, 예술, 영화계의 성공을 거두고 현대 이스라엘은 19세기 시온주의 운동을 배경으로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 역시 다양하다. 그중에 요셉은 참으로 중요한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한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 태어난다. 그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였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함으로 요셉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기 시작한다. 그런 중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 줌으로 더욱

미움을 받게 된다. 그의 꿈은 요셉이 형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것이요.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요셉은 꿈으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더욱 받게 되고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간다. 그때 그의 나이는 17 세 였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 된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므로 요셉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시므로 성실한 요셉은 그 집을 총관리하는 가정의 총무 직위를 얻게 된다. 말은 일에 성실과 충성을 다하였던 요셉이 27 세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는다. 요셉은 신앙의 양심으로 유혹을 물리치므로 부끄러움을 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에 보내나 감옥에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때 흉년이 온 땅에 임함으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던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과 재회를 하게 되며, 그의 아버지와 11 명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해와 달과 11 별이 요셉에게 절하던 꿈대로 꿈이 현실화 되었던 것이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톨스토이는 “가장 완전한 소설”이라고 평했으며 독일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토마스 만도 요셉을 소재로 하여 3 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소설을 썼다(김희보, 1984, p. 16 & 202)). 창세기의 요셉은 그들 형들의 잘못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한다. 많은 연극과 영화 등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한 유명한 예술 작품은 이 사건을 1968 년 영국의 한 학교에서 15 분짜리 칸타타로 공연 되었다가 수 차례의 공연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학교와 아마추어 극작가들이 연출하여 약 20000 번이 공연되었다고 한다. 연극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발전되어 <CATS>와 <Evita> 등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Andrew Lloyd Webber 와 Tim Rice 에 의해 뮤지컬의 명작 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 이 탄생되었다. 이 작품은 대사가 거의 없이 뮤지컬로 되어 있다. 또 최근에는 할리우드 에서 Joseph: King of Dreams 이라는 DVD 도 출시되었다.

III. 결론 및 제언

영어 성경은 영미 언어, 문학, 예술, 사회 및 다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러한 영향은 방대하여 본 논고에서는 우선 성경의 첫째 책인 [창세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본 논고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 바와 같이 영어성경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 문학을 이해하고 영국과 미국의 사회 역사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기본이요 첩경이다. 그리하여 영미 문학 교육자들은 영미 문화와 사회 역사 그리고 영미문학을 배우는 것보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영어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영어와 영미문학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성경의 이야기는 서양문학 그리고 서양문화 그리고 세계 문학과 문화에 한 원형(archetype)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와 인물 그리고 플롯은 서양의 문학과 문화 특히 영문학의 문학과 문화의 원형 혹은 뿌리가 되고 있다. 원형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세계의 여러 나라의 문학 속에 나와 있는 신화들이나 동화들 속에는 그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정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제들과 똑같은 것들을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상이나 꿈, 망상, 및 광희(狂喜) 상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들과 연상이 원형적 사고(archetypal idea)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이 이미지들에는 더욱 강한 감정적 색조가 묻게 되며 이 이미지들은 우리를 감동시키며,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매혹시킨다. 이 이미지들은 그 기원을 원형에 두고 있는 것이다. 원형이란 그 자체로서는 표현 불가능한 것이며,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정신 구조의 한 부분인 것 같이 생각된다. 그리하여 원형은 문학에서 나타나는 상징, 인물, 플롯 패턴이다. 성경은 이러한 원형을 많이 제공하며 창세기에 나타난 이러한 원형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창세기와 성경의 이야기, 플롯, 상징 등은 기독교를 믿는 서양의 문학과 문화에 원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형이 서양 문화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학과 문화에 친숙하게 만드는 뿌리를 제공하고 있다. (Frye, 1982; Ryken, 1984)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중에는 ‘영어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국제적 안목과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소재 중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 영어교육에서는 성경의 이야기나 비유 등 성경의 내용과 관계된 것은

금기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종교는 문화의 꽃’ 이라고 하며 성경은 영미인들을 포함하여 세계의 문화 문학 예술을 이해하는 원형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영어가 국제어이고 세계가 의사소통하는 기본언어이니 영미인들의 언어와 문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의 문화 및 가치관을 연구하는 포괄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영어성경의 내용과 그것의 사회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고 영어교육 전공자들에게 교육적이고 객관적인 안목으로 영어성경이 영어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철학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연구하고 영어교육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강용구, 김중선, 2006; 최숙희, 2007; 최수영, 2008). 그러나 그러한 지식을 학교 영어교육에 어떻게 적용하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어떻게 학교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교육계를 설득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 강용구, 김중선. (2004).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지도. *영어어문교육*, 9(2), 71-90.
- 김봉군, 최혜실. (1988). *문학교과서*. 서울: 지학사
- 김희보. (1984). *기독교 문예 사조사*. 서울: 종로서적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2002). 서울: 대한성서공회.
- 유성덕. (1985). 영문학에 영향끼친 성경문체의 특색, *영어교육* 30호, 21~640.
- 유성덕. (1991). *성경과 영문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 조신권. (1987). *영문학 속에 나타난 성서의 향기*. 서울: 품만출판사.
- 조신권. (1992). *성서문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최수영. (2008). 영어성경과 영어교육. *영어교과교육*, 7(2), 53~86.
- 최재현. (2004). *다시 읽는 존 밀턴의 실낙원*. 경북대학교출판부.
- 최숙희. (2007). 영어교육에서의 전통적 가치관과 미국문화. *영어어문교육*, 13(1), 261-282.
- 市河三喜. (1959). *聖書の英語*. 東京: 研究社.
- Bible literacy report*: (2005). The Bible Literacy Project. Front Royal, VA.
- Bible literacy report II*: (2006). The Bible Literacy Project. Front Royal, VA.
- Carroll, J.B. (Ed.).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of Benjamin Lee Whorf*. Cambridge, Mass.: M.I.T.
- Choi, Soo-Young. (1986). solving the problem of the Korean topic/subject particles *nun* and *ka*: A paradigm and a text analysis. *Linguistics* 24, 351-369, The Hague:

Mouton.

Ellis, Joseph J. (2007). *American Creation: Triumphs and Tragedies at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New York: Random House.

Frye, Northrop. (1982). *The Great Code: The Bible and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Harvest Book

Halley, Henry H. (2002). *Halley's Bible Handbook with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27th ed.). Grand Rapids, Michigan: Zonbervan.

Newcombe, Jerry. (2009). *The book that made America: how the bible formed our nation*. Ventura, CA: Nordskog Publishing.

Payne, Thomas. (1776). *Common sense*. <http://www.ushistory.org/paine/commonsense>

Ryken, Leland. (1984). *How to read the Bible as literature*. Michigan. Zondervan.

Schippe, C., Stetson, C. (Eds.). (2005). *The Bible and its influence*. Front Royal, V.: The Bible Literacy Project.

Stevenson, Burton. (1967). *The Home Book of Quotations - Classical & Modern*.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The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World Bible.

Youngblood, R. F. (1991). *The book of genesis*. Grand Rapids: Baker.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College/Graduate School

최수영(Soo-Young Choi)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Tel: (043) 230-3512 / C.P: 010-2488-3512

Email: sychoi@knue.ac.kr

Received in October 11, 2010

Reviewed in November 20,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15, 2010